

### 국민의힘 특검규탄 강경투쟁 모드"이재명 정권 붕괴에 목숨걸고 진격"

압수수색 시도 사흘째 특검 규탄대회 장외 투쟁 카드도 만지작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외(對外)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은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



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연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불법"이라며 "떨어든 먼지가 안 나오니까 막무가내로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게 불법 과잉 수사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며 "불법 무도한 특검과 민주당 일당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으로 변질해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의회주의로, 법정에서는 법치로, 거리에서는 국민과 함께 야당 말살, 정

치 탄압, 특검 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등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내란 프레임을 제도화·공고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 몰이를 계속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둑 승리를 하고, 우리 당을 해체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술수"라며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를 우리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와 규탄대회 등 국회 내에서 대외 투쟁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검사, 수사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봉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9월 7일 한강 예빛섬서 'SH 영화제' 개최

주말 저녁 한강에서 즐기는 낭만의 영화제...시민 참여형 부대행사·프로그램 다수 마련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 한강의 매력과 문화의 향기를 더해 풍성한 행사 기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오는 9월 7일(일) 오후 4시부터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SH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영화제는 주말 저녁 한강의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시민이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 운영 및 체험 공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오후 5시부터는 ▲ 마술 풍선 쇼 ▲ 오락(레크리에이션) ▲ 아카펠라 등 부대 공연이 진행된다.

이후 오후 6시 30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판타지 영화 '원카(2024)'가 상영된다. 한편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해 온 우리은행도 이번 영화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동참한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영화 상영 전후로 자전거 승사탕 만들기, 매듭 팔찌 체험, 사진 촬영 구역,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한강은 서울의 상징이자 시민 모두의 한터"라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강의 매력과 문화의 향기를 나누고, 시민이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 한전KDN,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유공자 수상

자체 개발한 K-ECP 기반의 AI 서비스 통한 산업혁신 성과 디지털 전환 산업부 장관 표창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3일 서울 소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활용(AI) 촉진 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산업 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 등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기관

을 대상으로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서비스형 인프라, IaaS -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 관리(관리형 서비스 공급자, MSP - Managed Service Provider)와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서비스로 에너지 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대외 디지털 전환(DX) 뿐만 아니라 사내 주요 정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하여 자체 테스트베드 운영과 혁신 허브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민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전력그룹과 에너지 관련사의 DX·AX 전환 사업 등

외부 고객사로 서비스를 확산하여 새정부 정책에 선도적 부응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 받았다.

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선정되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 새로운 계약 방식을 알리고 활용하게 하여 행정 소요일수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한전KDN이 전력 등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에너지ICT 전문 기업으로써 DX·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발굴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5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가상세계(메타버스)·확장현실(XR)·인공지능(AI) 등 가상 융합 분야 공공문제와

기업 과제 해법 모색 본선 15팀 겨뤘, 최종 6개 팀이 대상·최우수상 수상



수상을 받았다.

대회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XR) 콘텐츠 ▲경기도 문화와 상징물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자연을 활용한 실감형 상호작용 콘텐츠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과제는 경콘진과 더 샌드박스 코리아, HD 현대사이트솔루션 등 협력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정해졌다.

'공공문제 해결 콘텐츠' 분야에서는 인규원 팀이 경기도 내 비활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형 디지털 트윈 XR 콘텐츠 'Petstomize'로 대상을 받았다. 중앙대학교 소속 애공인사이드 팀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발음 교정 도움 앱 '또박또박'을 내놓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문화·상징물 체험 콘텐츠' 분야에서는 Desperate\_Cry 팀(동서대학교)이 경기도 주

요 관광지를 소재로 한 가상세계 역할놀이 게임 '경기요괴연'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대학교 소속 트랜스센터 팀은 경기도 무형 문화재를 계승을 위한 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 '두드림'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자연물 활용 상호작용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앙해커톤 팀(중앙대학교)이 유아 타기의 자연물 체험형 XR 어드벤처 퍼즐 '물의 여행'으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중부대학교 소속 풍이나유 팀은 농가 집수 방식 배수로 VR 시뮬레이션 '워터 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기업 후원 부상이 함께 주어졌다.

경콘진 탁용석 원장은 "이번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해 가상 융합 분야의 미래 인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가상 융합 분야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주관한 '2025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이 지난 8월 2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이틀간의 본선 일정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경콘진이 합

계 주관했다. 가상세계·확장현실(XR)·인공지능(AI) 등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공공문제와 기업 수요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본선에 올라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겨뤘으며 이 가운데 6개 팀이 대상과 최우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북미 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속도낸다

미국 내 최고 교육환경을 갖춘 신흥 부촌 Prosper시에 최고급 주거 공급 추진

텍사스주 주요 시행사인 Orion RE Capital과 Prosper 개발사업 MOU 체결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하며 북미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9월 1일부터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해 Orion RE Capital社에서 추진 중인 Prosper 개발사업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했다.

Orion RE Capital社는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하여 텍사스주를 주 무대로 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댈러스에서 타운하우스와 주택,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Prosper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주가 법인 세 혜택 등으로 기업 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 북미지역 개발사업 진출의 유력한 지역으로 검토해 왔으며, 댈러스 북쪽의 Prosper 시에서 첫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대우건설은 특히 Orion RE Capital社에서 추진 중인 Prosper 개발사업이 1단계 타운

하우스 개발을 시작으로, 주택, 호텔, 오피스까지 총 5단계로 추진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하여 초·중·고 등이 신규 교교한 우수한 입지를 가져 안정적인 투자처로 판단하고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심귀영 기자

###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 앞장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 확인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 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임직원들의 윤리적 책임의식 내재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